

광주 대동정신의 회화적 계승 '오월미술' 팡파르

제36회 오월미술제 오늘 개막

31일까지 광주일대서 미술축제 주제 '아직 오지 않은 대동세상' 연대전시·학술세미나·토론 다채

130주년(동학에서 오월로, 진정한 대동 세상을 꿈꾸며)을 함께 기념한다. 은암미술관, 전일빌딩245, 갤러리 Hyun 등 곳곳에서 열리는 주요 전시와 함께 광주 곳곳에서 연대전시, 팡파르토론,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오월미술제 전시공간은 △1전시관: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 △2전시관: 은암미술관 △3전시관: 갤러리 Hyun으로 나뉜다. 전일빌딩245 시민갤러리에서는 '간절히-원하다'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통해 사람과 만물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가치관을 새긴다. 은암미술관에서는 '서로-있다'라는 제목으로 어울림 더울림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낸다. 갤러리Hyun에서는 여성작가 특별전이 'Harmonious (하모니우스)'라는 제목으로 열린다. 세 곳의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지고 오는 11일 오후 5시 30분 은암미술관에서 오픈행사가 열린다.

이번 오월미술제에서 주목해야 할 문구는 'Weave a story From Dot To Dot 1(항쟁의 거점과 거점을 이어가며 저항의 이야기를 엮다)-Reboot'이다. 컴퓨터 등 기계를 구동하는 행위를 일컫는 booting에 Re가 붙은 'Reboot'는 시리즈물의 연속성을 단절시키고, 기초 설정만 유지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난 2020년 오월미술제로 외연을 확장한 이후 오월미술의 동시대성을 고민하

1989년 쉽게 그날의 진실을 입에 올릴 수 없었던 엄혹한 시대, 제1회 '오월전'이 치러졌다. 미술을 통해 사회를 직시하고자 했던 당시 청년예술인들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광미공)를 결성했고 이들은 매해 '오월에 본 미국전', '더 넓은 민중의 바다로', '희망을 위하여', '학살자 35인의 얼굴전' 등을 주제로 1980년 5월 광주를 화폭에 기록한 '오월전'을 열어 광주 민중미술의 깊이를 다졌다.

'오월전'은 이후 광미공의 후신 격인 민족미술인협회 광주지회가 주도하게 됐고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오월미술제'로 외연을 확대, 거리에서 민중과 함께하며 광주정신을 추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과 동시에 광주 대표 미술행사로 성장했다.

오월미술제가 올해로 36회를 맞이했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에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아직 오지 않은 대동세상'이라는 주제로 1일부터 31일까지 5월 한 달간 광주 일대에서 열린다. 특히 광주정신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운동



1995년 오월전 금남로 거리전 현장.

전남일보 자료사진

고자한 의지를 담은 셈이다. 리부트 시이 지 말아야 할 기초 설정처럼, 오월미술제가 놓치지 않고 다뤄내야 하는 것은 '대동정신의 계승'과 '동시대성'이다. 제36회 오월미술제에서는 거대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혁명의 시발점이자 이후 이어진 여러 항쟁의 초석이 된 '동학의 정신'을 오월미술제의 새로운 경계 시작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오월미술제 부대행사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5·18 44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통해 담론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세미나는 '동시대 새로운 담론

으로서 오월미술제의 방향성 찾기'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환점에선 오월미술제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한다.

발표자로는 김종길 경기시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홍성담의 오월판화와 그 미학), 임종영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실장(오월미술제 내용과 방향 '우문현답'에서 답을 찾다),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오월미술의 동시대성과 확장성), 이현남 오월미술제 총감독(오월미술에 담긴 동시대 감성연구_오월미술제를 중심으로)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신용철 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 김허경 호남학연구원 학술 연구교수, 김희련 작

가가 참여한다.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20부터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토론은 오월미술제 참여작가와 광주시민들이 함께하는 토크쇼 형태이며 '민주주의의 초석-동학에서 5·18까지(아직 오지 않은 대동세상!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대동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발제자로 한진수(해파 운상원 518 더하기 1), 박성완(062518), 자코모(광주 5·18과 이탈리아 볼로냐 학살), 박철우 작가 등이 함께한다.

또 5·18을 주제로 한 연대전시도 광주 전역에 걸쳐 진행된다. 5·18기념문화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갤러리27번가, 갤러리생각상자, 광주여성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메이홀, 비움박물관,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송정작은미술관, 오월미술관, 이강하미술관, 자미갤러리, 전남대학교 역사관, 전일빌딩 245 등에서 '오월'에 대한 다양한 전시를 준비했다.

이현남 제36회 오월미술제 총감독은 "우리의 오월이 바라는 진정한 대동 세상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다. 여전한 사회문제들은 그날의 우리가 보여줬던 대동정신을 계속 퇴색시켜가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평등을 바랐던 동학의 정신은 오월정신의 초석이기에 다시 한번 이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 북구문화센터가 오는 4일 인형음악극 '갈갈나무'를 공연한다. 광주 북구문화센터 제공

파니와 함께 떠나는 우정과 모험의 여정

인형음악극 '갈갈나무' 공연 4일 북구문화센터 2회 무대

광주 북구는 어린이날 특별기획으로 오는 4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멀티미디어 인형음악극 '갈갈나무'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갈갈나무'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주제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과 음악을 접목해 제작한 인형극이다.

우리나라 대표 무대디자이너이자 한국 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명예교수인 윤정섭 교수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했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목각 인형'을 전문 연극배우가 연기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의 동심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주인공 파니가 아끼는 인형 곰곰이를 잃어버리게 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 같다는 엄마의 말을 듣자 수레 할아버지가 가져갔을 것이라 생각해 친구들과

함께 곰곰이를 찾아나서는 이야기로 흘러간다.

우정과 모험의 여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삶의 가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공연의 주제는 애니메이션 영상과 음악 등 다양한 시청각적 요소를 활용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꾸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문나리 북구문화센터 공연기획 담당 주무관은 "흔히 접할 수 없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목각 인형, 그리고 벽과 스크린으로 변하는 테이블을 비롯해 기차 엔진을 담은 대형 무대장치, 이와 어우러지는 음악, 영상의 환상적인 무대효과 등 색다른 볼거리가 많은 공연이니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뜻깊은 추억 만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며, 전석 1만원, 관람연령은 만 4세 이상이다. **도선인 기자**

ACC, 아시아 스토리 소재 공모전 개최

내달 16일까지 사연 제출 주제 '도시에 놓인 꿈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6월 16일까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제4회 ACC 아시아 스토리 소재 공모전: 당신의 꿈을 나눠주세요'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ACC 창·제작 공연 제작을 위한 아이템 및 스토리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도시에 놓인 꿈들'로 △꿈과 욕망이 쓸고 간 도시의 흔적들 △꿈을 따라가 보니 보이는 장면들, 그 속에서 꿈이 만들어 준 관계들 △도시가 이식한 상상된 꿈, 도시의 흐름에서 탈각된 꿈, 도시를 재생하는 미래의 꿈 등

'꿈'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도시문화와 도시의 일상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찾고자 한다.

공모는 아시아 거주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800자 이내로 사연과 스토리, 인물묘사, 기타 아이디어 등을 제출하면 된다. ACC는 소재의 독창성과 참신성을 포함하고 내용의 확장성과 공연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총 15편의 스토리를 선정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1300만원 규모로 대상에게는 300만원을 시상한다.

접수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7월 마지막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CC 아시아 스토리 소재 공모전'은 시민들이 가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이를 ACC 창·제작 작품으로 개발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격년제로 이어오고 있다.

제1회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 '시간을 짓는 건축가(송재영 작)'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3년여간의 제작과정을 거쳐 지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공연에 이어 2021년부터 3년째 ACC 창·제작 상연목록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라이트 하우스에서 공연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배우 강석우와 함께 11시 음악산책

28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4월의 숲속' 등 본인 작곡 소개

화요일 오전, 일상에 여유를 선사하는 11시 음악산책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강석우, 삶이라는 꽃'이란 주제로 열린다.

5월 음악산책을 함께할 주인공은 46년 동안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준수한 외모와 따뜻한 연기로 사랑 받은 배우 강석우(사진)다.

그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CBS라디오 음악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DJ로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의 장벽을 낮추고 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해왔다.

또한 직접 선곡한 클래식을 담은 음반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발매, 삶과

클래식을 엮어낸 에세이집 '강석우의 청춘 클래식' 출판 등 클래식 전도사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해설자로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이번 광주 관객과의 만남에서 삶이라는 꽃을 피워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음악을 전한다.

그가 직접 작사·작곡한 가곡 '4월의 숲속', '이별의 시간', '밤눈', '그리움조차', '가을 그리고 겨울', '내 마음은 왈츠' 등을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특히 강석우의 가곡 사랑은 남다르다. 클래식 라디오 진행 당시 프로그램 내에 '10시 가곡'이라는 코너를 만들 정도로 가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며, 청취자를 위해 가곡을 창작했다.



또 오페라 아리아 대본을 읽고 쓴 '그리움조차', 소설가 최인호의 시에 곡을 붙인 '밤눈' 등이 있다.

최근 발표된 신곡 '이별의 시간', '가을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의 인생을 담았다.

이번 공연은 국내 최정상 성악가들이 그의 가곡 사랑에 뜻을 같이하며 의기투합한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에 유연한 감성을 지닌 소프라노 강혜정, 따뜻하고 감미로운 바리톤 송기창이 창작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러닝타임은 80분이며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오는 7일 오전 11시(선예매), 오후 2시(일반예매)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